

“영혼 체인지 연기 고민…영어 공부하듯 억양까지 외워”

강태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세자 이강역…“전역 후새 이미지 보여주고팠죠”

겉모습은 푸른 곤봉포를 차려입은 왕 세자지만, 입에서는 걸쭉한 사투리가 솟아져 나온다. 조금 전 근엄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팔자 눈썹을 죽 늘어 뜨린 채 울상을 짓기도 한다.

MBC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이하 ‘이강달’)에 등장하는 세자 이강(강태오 분)은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상반된 모습을 수시로 보여줬다. 극 중 이강과 부보상 박달(김세정)의 영혼이 뒤바뀐 탓이다.

이 때문에 강태오는 어릴 때는 균엄한 왕세자 같은 모습을, 또 어릴 때는 활달한 저잣거리 여자 상인의 영혼을 표

현해야 했다.

이처럼 ‘남녀 영혼 체인지’라는 까다로운 연기를 해낸 배우 강태오를 17일 만났다.

그는 영혼이 뒤바뀐 주인공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제 정이에게 대사를 읽어달라고 하고, 영어 공부를 하듯이 녹음본을 계속 따라 읽었다. 억양과 박자감을 다 외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말투뿐만 아니라 몸짓도 다르게 표현 했다.

강태오는 “세정이가 생각을 할 때 습관적으로 눈을 굴리길래 저도 (영혼이

바뀐 것을 표현할 때) 적용했다. 조선시대 여자들은 치마를 입으니 뭘 때도 도포라도 잡고 뛰는 동작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망건은 원래 눈썹에 맞춰 써야 하지만 달이 영혼이 들어왔을 때는 망건도 높게 두고, 그것을 살짝 들어 올려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고 말은 역할에 대한 세심한 연기 포인트를 알려줬다.

나중에는 연기가 자연스러워지면서 오히려 이강 연기로 돌아가는 것 이 헛갈렸다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에는 강이 물에 달이 영



강태오 〈맨오브크리에이션 제공〉

녹두전’(2019), ‘련운’(2020), ‘어느 날 우리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2021)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역할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속 다정한 로펌 송무팀 직원 이준호다.

큰 사랑을 받았지만, 곧장 임대해야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자마자 3년간의 공백기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아쉽지는 않았나는 질문에 “소속사에서는 많이 아쉬워했지만, 저는 (사랑을 받아서) 괜찮았다”며 “또 덕분에 전역 후에도 작품이 끊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역 전과는 다른 역할을 맡아 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강태오는 “전역하고서 이전과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준호가 다정한 이미지였기에, 전역 후 첫 역할로는 차갑고 딱딱한 ‘감자연구소’ 소백호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극을 한번 더 해보고 싶었다”며 “6년 전 ‘녹두전’ 속 차율무를 기역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예전 영상 모음 속 제 모습을 다시 찾아보면서 준비했다”고 웃었다.

계속 새로운 역할로 도전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번에 ‘이강달’에서 액션 연습을 조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액션 장르를 해보면 저도 모르는 새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스릴러나 어두운 멜로 등 여태껏 해보지 못한 장르에서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합뉴스

날마다의 오늘의 운세

음력 11월 3일
천문역원 (062)673-2427

丑 쥐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한 걸음씩 걸어가자.
60년 생 계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 적당히 뒤어두고 걸음을 재촉하라. 72년 생 인연이 아니면 작은 난관에도 무너질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라. 84년 생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 자꾸만 꾼이니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96년 생 악간의 위험성은 적당한 긴장감과 경계심을 부추기니나쁘지 않다.

丑 소띠: 순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을 도모하는 지름길이니 무리하지 않도록 하라.
61년 생 강운 양면을 지니면 좋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소유해도 부럽지 않다. 73년 생 결과만 놓고 타인에게 책임 추궁하지 말고 모두를 기습속에 넣자. 85년 생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지만 오늘 만큼은 만족한다. 97년 생 주변소문에 귀기울이지 말고 보이는 것만 믿고 앞으로 기자.

寅 호랑이띠: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후회란 없는 법이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62년 생 과거에 짐작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서 차분하게 움직여라. 74년 생 보기 좋다고 혼자 득신하지 말고 여럿이 나누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86년 생 생각이 많으면 영동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 생각은 짧게 하라. 98년 생 길이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거든 시선을 아래로 두는 것이 편할 것이다.

卯 토끼띠: 정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니 재미있다.
63년 생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점점 소멸하여 훈적조차도 남아 있지 않는다. 75년 생 복잡한 일에 연루되면 빠져나가기 힘드니 자리에 서 빨리 일어서자. 87년 생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는다. 99년 생 행복과 불행의 차이점은 종이 한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辰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주황색

辰 용띠: 시선은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주변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날이다.
64년 생 외부오인 때문에 잠시 멈추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빨라진다. 76년 생 악점을 들추지 말고 감싸 안아주는 여유가 상대를 감동하게 한다. 88년 생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00년 생 똑같은 대응은 삼가고 다양한 면을 부각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라.

巳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노란색

巳 뱀띠: 변함없는 모습도 좋지만 어쩌면 싫증 날 수 있으니 생각을 바꿔보자.
65년 생 하나를 잊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다른 하나를 얻으니 행복한 날이다. 77년 생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달고 심장이 떨린다. 89년 생 마음이 편안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쉽게 풀리고 많은 걸 얻는다.

午 행운의 수: 4.7 행운의 색: 빨간색

午 말띠: 다투기보다는 인내하고 화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 생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78년 생 능동적인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보다 몇 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90년 생 우울한 시기를 벗어나 모처럼 환한 곳으로 몸을 옮기니 힘어난다.

未 행운의 수: 0.3 행운의 색: 담청색

未 양띠: 다양한 취미생활도 좋지만, 힘까지도 오래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55년 생 막역한 사이라도 금전 문제가 연루되면 서로 반복하고 일굴 불린다. 67년 생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잠시 뒤를 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79년 생 몸도 마음도 지칠 때는 모두 엊어버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91년 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는 때니 조금만 참자.

申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회색

申 원숭이띠: 중력에서 기다리지 말고 정상을 향해서 꾸준하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44년 생 겉으로만 맴돌지 말고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에 다가서야 해결된다. 56년 생 가래로 막을 일 험미로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살피자. 68년 생 우물 안에서 벗어나 드넓은 곳으로 나서지만, 웬지 나선 것이 많다. 80년 생 빠른 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우회하는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92년 생 생각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여력이 없으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酉 행운의 수: 2.6 행운의 색: 검은색

酉 닭띠: 서운한 마음을 오래 두면 마음에 병이 생기니 빨리 잊어야 편하다.
45년 생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그것을 도와서나니 안타깝다. 57년 생 생길 때는 비교적 간편하게 준비하고 느긋하게 움직일 것. 69년 생 드는 정은 물라일 드는 정은 유별나게 표가 나는 법이니 조심하라. 81년 생 태생이 이라고 저라고 하지 말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끌어가기 좋다. 93년 생 주제에 맞게 재고자지 말고 정확하게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戌 운의 수: 1.8 행운의 색: 노란색

戌 개띠: 우직하게 한 가지 일에 매진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운세다.
46년 생 심증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겉으로 맴돌고 있으니 마음이 상하겠다. 58년 생 정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년 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지만 오래도록 유지는 어려울 듯하다. 82년 생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몸도 마음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다. 94년 생 웃는 얼굴로 마주치면 생각보다 일도 수월하고 여유로워 유익하다.

亥 행운의 수: 3.9 행운의 색: 초록색

亥 돼지띠: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남이 보기에도 좋아 보인다.
35년 생 마음이 행하는 대로 움직이며 자손들에게 복록이 스스로 찾아온다. 47년 생 직접 나설 일이 아니라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59년 생 예견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하게 대응하라. 71년 생 자식에게 근심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 날이다. 83년 생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고통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95년 생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열심히 저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부터 청기자.

亥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보라색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동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진다.

tbn 차자기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좋은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흥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정보전화 080-333-8000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살지 못라~

달리다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용규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KCTV 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 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팀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 VJ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활동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현장인터뷰 이사람 (‘전국 수석 수능 만점’ 서석고 최장우 학생)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26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전국 수석 만점은 기록한 광주 서석고 최장우 학생과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만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부 비법과 학생 최장우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네트워크발굴 서울금강 (‘우아한’ 광주 대표 계장 맛)
4곳의 케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혜지의 맛과 맛의 현장.
이번 흰는 광주 동곡의 계장의 맛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동 기획으로 우아한 계장을 찾다가 그 맛의 진수를 경험한다.

SO네트워크 (‘우아한’ 광주 대표 계장 맛)
방송인 정해보와 떠나는 지역 케이블방송사 공동제작 '찌' 현지 탐방프로그램.
국가 청정지로, 생태도시로 '뜨고 있는 도시' 순천을 찾아간다.